

강진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일석이조' 효과

난임부부·수도권 향우 등에...먹거리 제공·농산물 소비 확대 사업비 2800만원 투입 임신부 59명 꾸러미 지원 조기 완료

강진군이 난임부부와 수도권 향우 등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농산물 소비 확대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은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가공 식품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꾸러미 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관내 주소를 둔,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꾸러미를 지원 사업비 중 1인당 38만4000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 전남도 자체 신규 사업이다.

'수도권 향우 꾸러미 지원사업'은 수도권 이외에도 전남 및 광주시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강진군 향우가 대상이며, 1인당 연 50만원(자부담 25만원 포함) 상당의 꾸러미 구입시 절반인 25만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강진군 보건소에서 시술비 신청 시 방문

·팩스·이메일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수도권 향우 꾸러미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출생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갖춰 군 또는 고향 읍·면사무소에 방문·팩스·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전용관에서 친환경인증 받은 신선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월 4회(연 16회) 이내, 회당 3만원 이상 주문해 각 가정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강진군은 앞서 올해 관내 임신부 59명에 대해서 사업비 2800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조기 완료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소비자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확대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길 바란다"며 "사업 해당자들에게서 꼼꼼히 살피시어 혜택을 가져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윤병태(맨 앞줄 오른쪽 세번째) 나주시장이 금천면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나주시 제공)

폭염 이겨내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나주시 경로당 냉방비 추가 지원 618곳... 냉방기기 수리·교체도

나주시가 역대급 폭염 속에서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폭염으로 인해 증가한 냉방기기 전력 사용량을 보충하기 위해 긴급구호기금을 신속히 확보해 지역 618곳의 경로당에 한 곳당 냉

방비 5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시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전체 경로당에 냉방비 33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 냉방기기 총 802대를 점검하고, 그중 182대를 선별해 수리 및 교체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전면

중단하고 실내 참여자 교육으로 대체했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달 25일 남평읍 대교 경로당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읍면동 무더위쉼터 4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르신들이 지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전남체전 대비 위생업소 환경개선

시설 교체 2000만원까지 지원

장성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개최하는 전남남도체육대회를 앞두고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에 나선다.

장성군은 전남체전 선수단 숙박업소, 식품업소, 이모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 지역 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19일 공고일 기준 영업주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장성군 지역 내 업소다.

신청 자격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사업비 50% 자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식품위생업소는 칸막이(파티션), 오븐, 키오스크 등 소규모 장비 구입비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는 소요

금액의 50%를 5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장 개·보수는 소요 금액의 5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4월 장성에서 열리는 제64회 전남체전과 제33회 전남장애인체전 '선수단 사전 예약제' 참여 숙박업소는 객실 도배·장판 교체 비용의 50%를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오는 28·30일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 또는 장성군 외식업지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061-390-7312)으로 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위생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2025년 전남체전'의 성공 개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함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서 버블파티를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 (함평군 제공)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인기리 폐장

한 달간 3만 5천여명 방문

함평군은 지난달 19일 개장에 한 달간 운영한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20일 성황리에 폐장했다고 밝혔다.

31일간 운영된 물놀이장은 3만 5000여명의 이용객이 다녀가며 약 3억 7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지역 여름 피서지로서의 인기를 재확인했다.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함께 DJ 버블파티 등 특

별 이벤트가 열려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500여대의 넓은 주차 공간과 차광막, 화장실과 샤워실 등 깨끗하고 편리한 부대시설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물놀이장 내에 배달 음식 픽업 존(Pickup Zone)을 설치하는 등 이용객 편의 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방문객들이 물놀이장을 더욱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비점 개선과 다양한 신규 이벤트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 결혼장려금 1000만원 지급 27쌍 선정

화순군이 지난 19일 내년도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을 받게 될 청년 예비부부 27쌍을 선정했다.

화순군은 결혼 초기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신고 뒤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지역 정착에도 기여토록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결혼장려금 지원 시책에 따라 장려금(9억3200만원)을 받은 부부는 총 224쌍으로 늘었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 224쌍 중 타 시

·군 전출로 인해 지급 중지된 부부는 6쌍에 불과해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에 기여도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로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혼인 신고 당일 전입 신고도 포함된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과 함께 만원임대주택,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출산·양육 지원금 등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2차 추경 1차보다 289억원 증액 5689억원 편성

벼 출하장려금 지원 등 반영 군의회 심의 9월6일 최종 의결

담양군이 289억원 증가한 5689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담양군은 2차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285억원, 특별회계 4억 원을 증액했다. 1차 추경 예산 5318

억원보다 289억원(5.4%)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주요 사업은 ▲친환경 인증벼 출하장려금 지원 사업 등 농업분야 49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5억원 ▲추월산지구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등 41억원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등 38억원이 반영됐다.

2차 추경안은 담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9월 6일 최종 의결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 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피톤치드와 함께 건강걷기 장흥 억불산 산림욕장 1.2km 산책로 황톳길 인기

장흥군이 억불산 산림욕장에 맨발로 걸으며 산책할 수 있는 황톳길을 만들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억불산 산림욕장 산책로는 총 1.2km, 폭 1.5m 규모의 황톳길로 조성되어 있다. 황톳길은 편백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피톤치드와 함께 하는 산림욕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황톳길 맨발걷기는 이용객들에게 최고의 휴식과 건강함을 선물한다.

맨발걷기는 말초신경이 자극되어 신체 곳곳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신체정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힐링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 억불산 산림욕장 황톳길.

장흥군,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100세대 짓는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장흥군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청년 창업인,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저렴한 비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사업

제안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최종 발표평가를 거쳤다.8

군은 군유지인 장흥읍 건산리 옛 KBS장흥중계소 일원에 2028년 까지 100세대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편의시설로는 커뮤니티카페, 실내운동공간, 공동세탁실, 야외놀이터 등을 조성한다.

응모한 총사업비 328억원 중 이미 취득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268억원 규모로 이중 출자

지원 78억원, 융자 83억원, 군비 부담은 107억원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5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실시절계에 착수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젊은 세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